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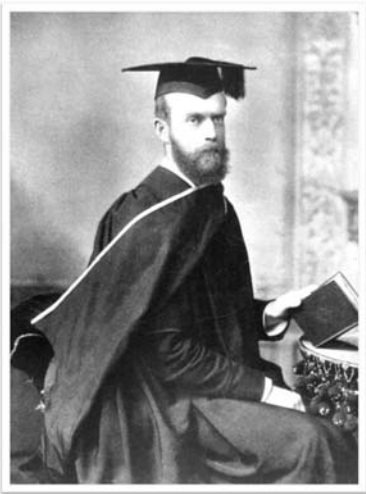
조선의 관문 부산 The Gate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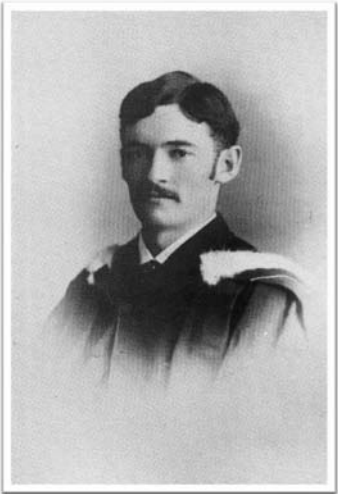
이사벨라 비숍(Isabella B. Bishop, 1831-1904)의 저서 *Korea and Her Neighbors*(1897)에 실린 선교초기의 해로가 담긴 지도에는 다음과 같이 일본 나가사키로부터 조선의 부산과 제물포에 이르는 길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나가사키(長崎)에서 조선의 남단에 위치한 부산(釜山)까지는 기선으로 15시간이 걸린다. 1885년 초반 일본 우선(郵便)회사는 5주마다 블라디보스토크와 부산을 왕래하는 기선 1대와 한 달에 한번씩 제물포(濟物浦)와 부산을 왕래하는 작은 배를 운행한다. 지금은 큰 작든 간에 부산에 기선이 기착하지 않는 날이 없다.” 비숍의 책 제1장의 제목은 “조선의 첫인상”이며, 여기서 그녀는 부산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즉 반세기 동안 세계 각국을 여행한 그녀에게는 적어도 서울이 아니라 부산이 조선의 첫인상이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2장 “서울의 첫인상”에 이르러서야 조선의 왕도 서울에 대해 쓰고 있다. Busan holds a significant place in the history of Christianity in Korea. The city was the first landing place of the earliest missionaries to Korea. It is normally said that the earliest missionaries to Korea arrived in Incheon in 1884 and 1885. However, all historical evidences show the fact that they took their first steps on the soil of Busan.

“부산항이 내려다보이는 산기슭에 데이비스선교사를 묻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데이비스선교사는 여기에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This morning they were placed in the little foreign burying ground on the mountain side, overlooking the bay to sleep till the appearing of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부산의 첫 상주선교사 제임스 게일이 기록한 부산의 첫 순교 선교사 헨리 데이비스의 마지막 순간
From the letter of James Gale regarding the last moments of Henry Davies



헨리 데이비스(Henry Davies, 1856-1890)



제임스 게일(James Gale, 1863-1937)



부산의 기독교 유적지
Historic Christian Sites in Busan



부산장신대학교 부산경남교회사연구소
Center for the Study of Church History,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1894-68 / 055) 320-2534

1

《부산항 Busan Port》은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의 초기 선교사들이 첫 발을 내딛었던 곳이다. 현재의 해안선은 일본인들의 매립으로 인해 확장된 상태며, 1883년에 설치된 부산해관은 현재의 부산항연안여객터미널 건너편 부산대파트 부근에 위치했다. 부산본부세관에 설치된 《부산세관박물관 Busan Main Customs Museum 620-6094》은 선교사들의 입국이 시작된 개항 당시의 부산항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2

《용두산공원 Yongdusan Park》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의 신사가 있었던 곳으로, 남포지역에는 일본인들의 집중거주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용두산공원 내에 있는 《부산타워 Busan Tower》에서는 부산시내와 해안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3

용두산 밑에는 역사적인 《부산근대역사관 Busan Modern History Museum 253-3845》(옛 미문화원)이 있어 부산 근대역사에 대해 볼 수 있으며, 항일독립운동가 안희제가 독립운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백산상회가 있던 자리에 《백산기념관 Baeksan Memorial Hall 600-4067》이 위치하고 있어 백산의 항일독립정신을 기릴 수 있다. 《보수동책방목문화관 Bosu Book Street Cultural Center 743-7650》에 있는 역사관에는 희귀한 고서들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부산의 명소 중 하나인 《국제시장 Gukje Market》과 젊은 층을 위한 《광복동패션거리 Gwangbokdong Shopping & Fashion Street》가 조성되어 있다.

4

용두산 북쪽 대청로 건너편에는 초기 선교사들이 묻힌 북병산이 있다. 지금은 이장과 유실로 인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나, 이곳은 부산선교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떨어져 처음으로 잠든, 부산선교역사에서 가장 뜻 깊은 곳이다. 무덤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는 한국전쟁 당시 피난지 부산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40계단문화관 40 Stair Cultural Center 600-4041》이 있다.

Historic Christian Sites in Busan

부산의 기독교 유적지 순례

Yours to Discover



5

한국전쟁 당시 피난지 부산의 상징이었던 영도대교를 건너면 《영도 Yeongdo》에 이른다. 영도는 평양대부흥운동의 주역 하디선교사의 거처가 있었던 곳이다. 이곳 해안 끝자락에는 경관이 뛰어난 《태종대 Taejongdae》가 있는데 날씨가 좋으면 일본 대마도도 볼 수 있다.

6

부산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자갈치시장 Jagalchi Market》은 1889년 일본이 자국 어민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산수산주식회사를 세우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부산문화의 중심 《남포동 Nampodong》에는 《부산국제영화제 기념광장 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quare》이 있다.

7

1892년 베어드에 의해 설립된 《초량교회 Choryang Church 465-0533》에는 초량교회역사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초량교회의 초기역사와 신사참배에 저항한 신안인들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다. 인근에는 《상해거리 China Town Shanghai Street》가 있다.

8

동구 좌천동에는 호주선교부의 소중한 유산들인 《부산진일신여학교기념관 Busanjin Ilsin Womans School Memorial Museum 635-7113》, 《부산진교회 Busanjin Church 647-2452》, 《일신기독병원 Ilsin Christian Hospital 630-0300》이 있다. 부산진일신여학교는 1895년에 설립된 한강 이남지역 최초의 근대여성교육기관으로서 부산지역 삼일운동의 첫 시발지이며, 현재 남아 있는 교사는 부산지역에 현존하는 최고의 서양식 건축물로서 2003년 부산광역시 문화재 제55호로 지정되었고, 현재 기념박물관이 설치되어 있다. 일신기독병원은 호주선교사 헬렌과 캐서린 맥켄지가 1952년부터 부산지역 여성들에게 기독교적 박애정신으로 의술을 베풀던 대표적인 여성병원이다. 일신병원에는 《맥켄지역사관 Mackenzie Museum》이 있어 한국전쟁 당시부터의 의료선교역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